



원자로 운전원의 사기와 원자력 안전

이 승 구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어 느새 계절은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지났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무더운 여름날의 땀과 노고 끝에 찾아오는 추수의 기쁨을 조상의 보살핌 덕분으로 알고 한가위날 조상들께 감사의 제를 올려왔다.

우리 원자력계는 지난 9월 10일 「제2회 원자력 안전의 날」을 맞아 관련 행사를 치렀다.

연일 갱신되던 최대 전력 수요 기록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규제자는 규제자대로 갖은 애를 다 태웠던 지난 여름을 반추할 때, 이 날을 맞은 원자력인의 마음도 한가위날 우리 선조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원자력 안전은 천지 신명이 살피주는 것도 아니며, 조상님들이 돌봐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오직 이 날의 감사는 원자력 안전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해 온 바로 '사람'들의 몫인 것이다.

작년말 우리 나라는 국민 소득 1만달러라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다고 한다.

대표적인 자원 빈국인 우리 나라가 후진국으로 출발하여 짧은 시간에 개발 도상국으로, 다시 중진국을 거쳐 이렇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데는, 값싼 전력을 생산·공급해 온 원자력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원자력은 기술 자립을 달성하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과학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산업으로서의 명실 상부한 국내 위상을 굳힘과 동시에, 조만간 북한에 우리가 개발한 표준형 원전을 우리 기술로 건설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기술 수준을 대외적으로도 과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원자력 이용·개발상의 성과는 그 저변에 안전성이 확고히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소한 오늘의 풍요로운 삶에 원자력이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는 만큼, 개발의 화려함에 가리워진 채 현장의 음지에서 수고해 온 원자력 안전의 일꾼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원자력 안전의 일차적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철저한 안전 규제 절차나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설의 설계·제작·건설·운영의 각 사업 단계마다 실제의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 요원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원자력 활동에 관련된 모든 요원들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원전 현장 종사자들, 특히 원자로 운전원들이 안전의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새삼 돌아보고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전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포함하여 예상할 수 있는

우리가 지향하는 절대 안전에 있어 운전원은 그 어떤 안전 계통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지적 안전 계통'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기백명의 안전을 책임진 항공기 파일럿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 세상에,
“ 지역 주민, 나아가 우리 국민 그리고 세계인의 안전을 책임진 원자로 파일럿이 ”
공지를 갖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이제는 최소한 매년 맞이하게 될
「원자력 안전의 날」만이라도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며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모든 사태 중 그 발생 빈도를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완벽한 대책을 구비해 놓고 있다.

이 경우 소위 말하는 '운전원의 실수'가 없는 한 원전은 안전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할 수는 있으나 그 발생 가능성이 극히 적어 설계시 고려되지 않은 경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태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바로 '운전원의 역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절대 안전에 있어 운전원은 그 어떤 안전 계통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지적 안전 계통'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TMI와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자력계를 포함한 도처에서 종종 이러한 '운전원의 역할'보다 '운전원의 실수'가 더 크게 부각되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반원전 세력의 주장과 여론의 부정적 보도 등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줄지는 모르지만, 원자력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수 인력의 원자력 분야 근무 기피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밤낮없이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운전원들의 사기나 질적 수준 저하는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적 안전 계통'의 건전성 상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같이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작년 6월의 고리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시에도 최소한 현지 분위기를 숙지하고 있는 원자력계 내부에서는,

오염 자체보다 미비된 여건하에서도 말없이 일해온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그에 따른 책임 의식 결여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부각되고, 급기야 당시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이 국무 회의 석상에서 이러한 실상을 토로함으로써 근무 환경 및 처우 측면에서 다소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실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지를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만큼 충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운전원들을 비롯한 현장 종사자들에 대 명예와 처우를 더욱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백명의 안전을 책임진 항공기 파일럿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 세상에, 지역 주민, 나아가 우리 국민 그리고 세계인의 안전을 책임진 원자로 파일럿이 공지를 갖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이러한 배려는 비단 원자로 운전원뿐만이 아닌 모든 현장 종사자들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최소한 매년 맞이하게 될 「원자력 안전의 날」만이라도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며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행사장에서 서로 등을 두드리며 격려와 축하를 주고 받던 바로 그 순간에도 말없이 맡은 일에 여념이 없었을 그분들에게 말이다. ☺